

(부산소설가협회, 시민도서관, 부산도서관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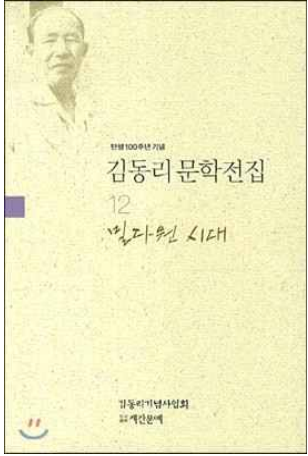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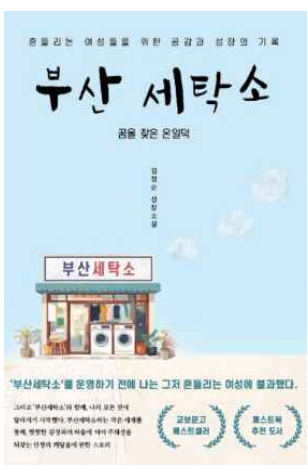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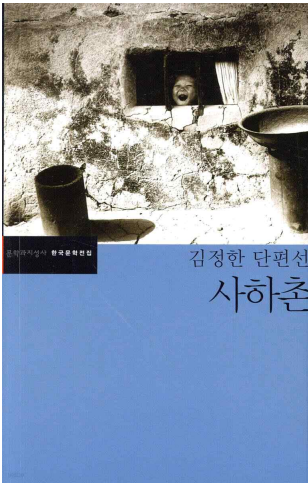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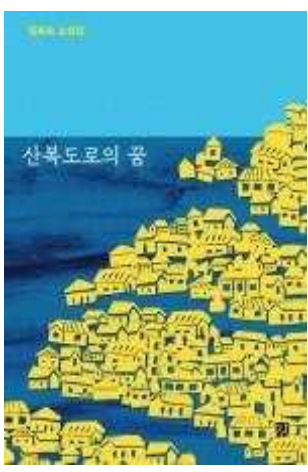
## 부산 배경 추천 소설

순서	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간년도	정가(원)	ISBN/고유번호
1	감나무집 동백꽃	<김문홍> 저	해성	2019년 08월	15,000	9788979212389
2	그곳에는 눈물들이 모인다	<이상섭> 저	창비	2006년 12월	9,500	9788936436964
3	다시 시작하는 끝	<조갑상> 저	산지니	2015년 06월	16,000	9788965452812
4	달맞이언덕의 안개	<김성중> 저	새움	2015년 03월	13,800	9788993964936
5	도망자의 마을	<이정임> 저	걷는사람	2024년 01월	17,000	9791193412237
6	라이프 재킷	<이현> 저	창비	2024년 07월	13,000	9788936457273
7	모자이크 부산	<김민혜>,<박영혜>,<조미형>,<오영이>,<장미영>,<안지숙> 공저	산지니	2021년 10월	15,000	9788965457565
8	물경하고 쫓득한 두려움	<정영선> 저	낮은산	2014년 05월	10,500	9791155250167
9	밀다원 시대	<김동리> 저/<김동리기념사업회> 편	계간문예	2013년 06월	12,000	9788965540809
10	부산 세탁소	<김정순> 저	페스트북	2024년 04월	15,000	9791169294812
11	사하촌	<김정환> 저	문학과지성사	2004년 12월	13,000	9788932015583
12	산복도로의 꿈	<임희숙> 저	강	2022년 11월	14,000	9788982183072
13	소시민, 심천도	<이호철> 저	새미	2001년 03월	12,000	9788989352259
14	숲의 아이들	<박주영> 저	문학동네	2020년 06월	13,500	9788954672153
15	아무것도 아닌 빛	<정영선> 저	강	2023년 03월	14,000	9788982183157
16	아버지의 광시곡	<조성기> 저	한길사	2024년 04월	17,000	9788935678631
17	얼음꽃을 삼킨 아이	<박향> 저	실천문학사	2010년 06월	9,500	9788939206366
18	오래된 불씨	<고금란> 저	호밀밭	2020년 07월	13,000	9791197022258
19	웃음과 울음의 원무	<허택> 저	강	2025년 03월	15,000	9788982183621
20	유토피아로 가는 네 번째 방법	<정광모> 저	산지니	2021년 06월	16,000	9788965457305
21	일각고래의 빨	<유연희> 저	강	2022년 11월	13,000	9788982183096
22	호텔 해운대	<오선영> 저	창비	2021년 12월	14,000	9788936438678

절판

	1	<p style="text-align: center;"><b>감나무집 동백꽃</b></p> <p style="text-align: center;">김문홍/해성/2019</p>
<p>『감나무집 동백꽃』은 부산의 한 주택가 골목 안 ‘감나무집’이라는 상상의 대가족을 배경으로, 여고생 채원의 시선을 통해 네 세대에 걸친 가족의 삶과 순환을 그린 작품이다. 봄의 목련, 동백꽃, 목소리 없는 속삭임처럼 인물들은 각자 원하는 삶을 살며 관계의 온도와 계절의 흐름 속에서 성장한다. 삶의 그늘과 빛, 느낌의 여유를 정감있게 조명하는 가족소설이다.</p>		
	2	<p style="text-align: center;"><b>그곳에는 눈물들이 모인다</b></p> <p style="text-align: center;">이상섭/창비/2006</p>
<p>부산을 근거로 활동하며 자신의 근거지에 충실하고 솔직한 작품을 발표해온 작가, 이상섭의 중·단편소설집. 표제작 '그곳에는 눈물들이 모인다'는 2002년 제5회 창비신인소설상을 수상한 작품. 소설의 주 무대는 난전이 펼쳐진 어시장 골목이다. 무능한 사위가 못마땅하기만 한 억척스러운 장모와, 어시장에 새로이 나타난 "이곳 사람을 닮지 않은 하얀 피부"의 새댁이 이곳에서 갈등한다. 생활이라기보다 생존의 현장에 가까운 어시장 풍경과 그곳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질박하게 그려내면서도, 작가의 시선은 세대와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한일 어업협정으로 물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부, 불법체류중인 양식장의 이주노동자... 바닷가를 둘러싼 삶의 현상이 일곱 편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p>		
	3	<p style="text-align: center;"><b>다시 시작하는 끝</b></p> <p style="text-align: center;">조갑상/산지니/2015</p>
<p>소설집 『다시 시작하는 끝』은 조갑상의 데뷔작 「혼자웃기」와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다룬 「사라진 하늘」을 비롯해 총 17편의 중단편으로 채워져 있다. 소설에는 고단한 삶과 그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인물들, 공간에 대한 긴 묘사, 그리고 쉬이 위로하지 않는 시선이 존재한다. 독특한 상상력과 스타일로 무장한 소설의 홍수 속에서 오랜만에 현실을 삼켜 소화하는 고통을 고스란히 담은 소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설들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삶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이다. (* 부산역, 은경동, 신평, 남포동)</p>		
	4	<p style="text-align: center;"><b>달맞이 언덕의 안개</b></p> <p style="text-align: center;">김성종/새움/2015</p>
<p>《여명의 눈동자》의 저자 김성종이 2014년 부산일보에 매주 한 편씩 연재했던 단편을 묶어낸 『달맞이 언덕의 안개』. 해운대 ‘달맞이 언덕’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살인사건, 추리작가의 괴짜 같은 일상, 원전 폭발사고를 둘러싼 이야기 등 모두 스물다섯 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유의 하드보일드한 문체로 그려낸 이야기들은 짜릿함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호기심과 긴장감을 전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도망자의 마을</b></p>
<p style="text-align: center;">5</p> <p style="text-align: center;">이정임/걷는사람/2024</p>	<p>『도망자의 마을』은 부산 외곽의 조용한 마을을 배경으로, 열심히 살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불편하고 고단해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주체들을 선보인다. 소설을 넘기면 손에 쥘 것은 쥐뿔도 없지만 세상이 짜놓은 굴레에, 남들 시선 따위에 굴종하지는 않겠다는 단단한 자부심을 가진 인물들이 제각각의 형상을 한 구름처럼 유유히, 자유분방하게 펼쳐진다. (*이정임 작가가 부산 산복도로의 삶을 주제로 한 소설이라고 언급함)</p>
	<p style="text-align: center;"><b>라이프재킷</b></p>
<p style="text-align: center;">6</p> <p style="text-align: center;">이현/창비/2024</p>	<p>&lt;푸른 사자 와니니&gt;의 베스트셀러 작가 이현은 청소년 소설의 주된 배경이 되는 수도권 인근의 학교를 벗어나 부산, 그리고 망망대해로 주인공들을 이동시킨다. 광활한 바다, 그만큼 무서운 그곳에서 불의의 사건에 휘말린 아이들은 깊은 흉터를 얻는다. 그러나 이야기는 주인공들의 흉터를 헤아리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걸 뉴스 사건 보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일에 꼼짝없이 꿰뚫힌 이들은 계속 묶인 채로 이야기 속에 살아야 하는가? 설령 이들이 픽션 속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묶인 줄을 끊고 한 발짝 움직이길 원한다. 하물며 바다를 헤매고 온 이들에겐 한 발짝뿐이랴. "파도에 삼켜지지 않는" 모습을 바라고 바란다. 이걸 바로 그 이야기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모자이크, 부산</b></p>
<p style="text-align: center;">7</p> <p style="text-align: center;">김민혜/산지니/2021</p>	<p>부산의 역사와 현재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테마소설집 『모자이크, 부산』이 출간되었다. 김민혜, 박영해, 조미형, 오영이, 장미영, 안지숙 여섯 명의 작가가 부산을 배경으로 쓴 이 테마소설집에는 로컬이 아니라면 알기 힘든 부산의 공간을 소환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물컹하고 쫘득한 두려움</b></p>
<p style="text-align: center;">8</p> <p style="text-align: center;">정영선/낮은산/2014</p>	<p>부산 고유의 지역색을 잘 녹여낸 정영선의 장편소설이다. 엄마의 동성애와 그로 인한 부모님의 이혼, 그 속에서 갈등하는 주인공 은수가 할머니네 돼지국밥집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다.</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96 91 555 219">9</td> <td data-bbox="555 91 1444 219"> <p align="center"><b>밀다원시대</b></p> <p align="center">김동리/계간문예/2013</p>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496 219 1444 562"> <p>김동리 탄생 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 제12권 《밀다원 시대》. 한국 근대소설사에 커다란 문학적 성과를 남긴 김동리 문학 세계를 널리 소개하고, 그 문학적 의미를 정리하는 데 간행의 목표를 둔다. 《밀다원 시대》는 6·25전쟁 속에서 작가가 겪은 시련과 아픔을 토대로 시대 상황과 작가정신의 의미를 실존적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탐색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 김동리는 부산 남포동을 중심으로 밀다원 시대를 이끌었다.</p> </td> </tr> </table>	9	<p align="center"><b>밀다원시대</b></p> <p align="center">김동리/계간문예/2013</p>	<p>김동리 탄생 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 제12권 《밀다원 시대》. 한국 근대소설사에 커다란 문학적 성과를 남긴 김동리 문학 세계를 널리 소개하고, 그 문학적 의미를 정리하는 데 간행의 목표를 둔다. 《밀다원 시대》는 6·25전쟁 속에서 작가가 겪은 시련과 아픔을 토대로 시대 상황과 작가정신의 의미를 실존적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탐색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 김동리는 부산 남포동을 중심으로 밀다원 시대를 이끌었다.</p>	
9	<p align="center"><b>밀다원시대</b></p> <p align="center">김동리/계간문예/2013</p>				
<p>김동리 탄생 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 제12권 《밀다원 시대》. 한국 근대소설사에 커다란 문학적 성과를 남긴 김동리 문학 세계를 널리 소개하고, 그 문학적 의미를 정리하는 데 간행의 목표를 둔다. 《밀다원 시대》는 6·25전쟁 속에서 작가가 겪은 시련과 아픔을 토대로 시대 상황과 작가정신의 의미를 실존적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탐색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 김동리는 부산 남포동을 중심으로 밀다원 시대를 이끌었다.</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96 577 555 696">10</td> <td data-bbox="555 577 1444 696"> <p align="center"><b>부산 세탁소</b></p> <p align="center">김정순/페스트북/2024</p>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496 696 1444 1048"> <p>&lt;부산세탁소: 꿈을 찾은 온일덕&gt;은 한 여성의 깊이 있는 인생 여정과 그 속에서 꽃피우는 꿈과 행복에 관한 감동적인 서사이다. 온일덕, 이 이름 하나에 평범한 일상을 넘어서는 드라마틱한 삶과 꿈을 향한 끝없는 여정이 담겨 있다. 전북 김제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을 거치며 부산세탁소의 주인공으로 성장한다. 이 책은 주인공의 단순한 성장 기록을 넘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용기를 전달한다.</p> </td> </tr> </table>	10	<p align="center"><b>부산 세탁소</b></p> <p align="center">김정순/페스트북/2024</p>	<p>&lt;부산세탁소: 꿈을 찾은 온일덕&gt;은 한 여성의 깊이 있는 인생 여정과 그 속에서 꽃피우는 꿈과 행복에 관한 감동적인 서사이다. 온일덕, 이 이름 하나에 평범한 일상을 넘어서는 드라마틱한 삶과 꿈을 향한 끝없는 여정이 담겨 있다. 전북 김제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을 거치며 부산세탁소의 주인공으로 성장한다. 이 책은 주인공의 단순한 성장 기록을 넘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용기를 전달한다.</p>	
10	<p align="center"><b>부산 세탁소</b></p> <p align="center">김정순/페스트북/2024</p>				
<p>&lt;부산세탁소: 꿈을 찾은 온일덕&gt;은 한 여성의 깊이 있는 인생 여정과 그 속에서 꽃피우는 꿈과 행복에 관한 감동적인 서사이다. 온일덕, 이 이름 하나에 평범한 일상을 넘어서는 드라마틱한 삶과 꿈을 향한 끝없는 여정이 담겨 있다. 전북 김제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을 거치며 부산세탁소의 주인공으로 성장한다. 이 책은 주인공의 단순한 성장 기록을 넘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용기를 전달한다.</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96 1064 555 1182">11</td> <td data-bbox="555 1064 1444 1182"> <p align="center"><b>사하촌</b></p> <p align="center">김정한/문학과 지성사/2004</p>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496 1182 1444 1547"> <p>부산을 배경으로 한 한국 리얼리즘 문학과 민족 문학을 대표하는 김정한의 대표 단편 11편을 수록했다. 민중들의 삶을 통해 누구보다 먼저 ‘근대화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제기하고 예리하게 포착한 작가 김정한의 문학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p> <p>사하촌寺下村(범어사 배경), 모래톱 이야기(낙동강 배경), 수라도修羅道 등</p> </td> </tr> </table>	11	<p align="center"><b>사하촌</b></p> <p align="center">김정한/문학과 지성사/2004</p>	<p>부산을 배경으로 한 한국 리얼리즘 문학과 민족 문학을 대표하는 김정한의 대표 단편 11편을 수록했다. 민중들의 삶을 통해 누구보다 먼저 ‘근대화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제기하고 예리하게 포착한 작가 김정한의 문학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p> <p>사하촌寺下村(범어사 배경), 모래톱 이야기(낙동강 배경), 수라도修羅道 등</p>	
11	<p align="center"><b>사하촌</b></p> <p align="center">김정한/문학과 지성사/2004</p>				
<p>부산을 배경으로 한 한국 리얼리즘 문학과 민족 문학을 대표하는 김정한의 대표 단편 11편을 수록했다. 민중들의 삶을 통해 누구보다 먼저 ‘근대화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제기하고 예리하게 포착한 작가 김정한의 문학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p> <p>사하촌寺下村(범어사 배경), 모래톱 이야기(낙동강 배경), 수라도修羅道 등</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96 1563 555 1682">12</td> <td data-bbox="555 1563 1444 1682"> <p align="center"><b>산복도로의 꿈</b></p> <p align="center">임희숙/강/2022</p>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496 1682 1444 2033"> <p>간난(艱難)한 삶은 모호한 관념이 아니라 생생한 육체적 현실이다. 내몰리고 밀려난 사람들의 곤궁한 처지는 의식주의 생활사를 통해 숨김없이 드러난다. 이 소설집은 이른바 ‘감천문화마을 연작’이라고 할 만한 작품들을 알뜰하게 묶었다. 주인공들은 대부분 산복도로 언저리의 산 중턱이나 산마루에 산다. 그런 곳들은 개발자본의 눈길에서마저 소외되어, 산업화다 뭐다 세상이 크게 변하는 동안에도 정체되거나 지체되어 있다. 것처럼 누군가에겐 남루해 보일지도 모르는 그곳이 또 어떤 이들에게는 존엄한 생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간의 장소라는 것을, 이 작가는 강조하듯이 이야기한다.</p> </td> </tr> </table>	12	<p align="center"><b>산복도로의 꿈</b></p> <p align="center">임희숙/강/2022</p>	<p>간난(艱難)한 삶은 모호한 관념이 아니라 생생한 육체적 현실이다. 내몰리고 밀려난 사람들의 곤궁한 처지는 의식주의 생활사를 통해 숨김없이 드러난다. 이 소설집은 이른바 ‘감천문화마을 연작’이라고 할 만한 작품들을 알뜰하게 묶었다. 주인공들은 대부분 산복도로 언저리의 산 중턱이나 산마루에 산다. 그런 곳들은 개발자본의 눈길에서마저 소외되어, 산업화다 뭐다 세상이 크게 변하는 동안에도 정체되거나 지체되어 있다. 것처럼 누군가에겐 남루해 보일지도 모르는 그곳이 또 어떤 이들에게는 존엄한 생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간의 장소라는 것을, 이 작가는 강조하듯이 이야기한다.</p>	
12	<p align="center"><b>산복도로의 꿈</b></p> <p align="center">임희숙/강/2022</p>				
<p>간난(艱難)한 삶은 모호한 관념이 아니라 생생한 육체적 현실이다. 내몰리고 밀려난 사람들의 곤궁한 처지는 의식주의 생활사를 통해 숨김없이 드러난다. 이 소설집은 이른바 ‘감천문화마을 연작’이라고 할 만한 작품들을 알뜰하게 묶었다. 주인공들은 대부분 산복도로 언저리의 산 중턱이나 산마루에 산다. 그런 곳들은 개발자본의 눈길에서마저 소외되어, 산업화다 뭐다 세상이 크게 변하는 동안에도 정체되거나 지체되어 있다. 것처럼 누군가에겐 남루해 보일지도 모르는 그곳이 또 어떤 이들에게는 존엄한 생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간의 장소라는 것을, 이 작가는 강조하듯이 이야기한다.</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80 100 555 219">13</td> <td data-bbox="555 100 1442 219"> <p style="text-align: center;"><b>소시민</b> <span style="float: right;">*절판</span></p> <p style="text-align: center;">이호철/새미/2001</p>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480 219 1442 566"> <p>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이호철의 작품집! 단신으로 월남, 부산에서의 피난생활 등 험난했던 세월의 기억을 묘사한 원로작가 이호철의 자전적 소설 두 편, 『소시민』과 『살』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작품집이다. 『소시민』은 6.25 전쟁 중, 피난지인 부산으로 떠밀려 온 '나'의 현실 속 여행을 통해 한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는 전환기적 변화를 새로운 방법론을 동원해 담아낸 작품이다. 험난한 세월 속에 빚어진 우리의 풍속도를 되짚어본다.</p> </td> </tr> </table>	13	<p style="text-align: center;"><b>소시민</b> <span style="float: right;">*절판</span></p> <p style="text-align: center;">이호철/새미/2001</p>	<p>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이호철의 작품집! 단신으로 월남, 부산에서의 피난생활 등 험난했던 세월의 기억을 묘사한 원로작가 이호철의 자전적 소설 두 편, 『소시민』과 『살』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작품집이다. 『소시민』은 6.25 전쟁 중, 피난지인 부산으로 떠밀려 온 '나'의 현실 속 여행을 통해 한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는 전환기적 변화를 새로운 방법론을 동원해 담아낸 작품이다. 험난한 세월 속에 빚어진 우리의 풍속도를 되짚어본다.</p>	
13	<p style="text-align: center;"><b>소시민</b> <span style="float: right;">*절판</span></p> <p style="text-align: center;">이호철/새미/2001</p>				
<p>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이호철의 작품집! 단신으로 월남, 부산에서의 피난생활 등 험난했던 세월의 기억을 묘사한 원로작가 이호철의 자전적 소설 두 편, 『소시민』과 『살』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작품집이다. 『소시민』은 6.25 전쟁 중, 피난지인 부산으로 떠밀려 온 '나'의 현실 속 여행을 통해 한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는 전환기적 변화를 새로운 방법론을 동원해 담아낸 작품이다. 험난한 세월 속에 빚어진 우리의 풍속도를 되짚어본다.</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80 566 555 696">14</td> <td data-bbox="555 566 1442 696"> <p style="text-align: center;"><b>숲의 아이들</b></p> <p style="text-align: center;">박주영/문학동네/2020</p>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480 696 1442 1055"> <p>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의 분수대 공사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된다. 유골은 이십 년 전, 일곱 살의 나이로 실종된 이영채의 것. 여동생이 실종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까지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부산을 떠나 의사로 살아온 이영우는 이영채 살인사건의 수사를 시작한 미제 사건 전담 형사 은혜주의 전화를 받고 부산으로 내려온다. 어린 시절 친구 김보미와 함께 유괴되어 혼자 살아남은 경험이 있던 은혜주와 이영우는 이영채 사건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도중 서로의 닮은 상처를 공유하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다.</p> </td> </tr> </table>	14	<p style="text-align: center;"><b>숲의 아이들</b></p> <p style="text-align: center;">박주영/문학동네/2020</p>	<p>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의 분수대 공사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된다. 유골은 이십 년 전, 일곱 살의 나이로 실종된 이영채의 것. 여동생이 실종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까지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부산을 떠나 의사로 살아온 이영우는 이영채 살인사건의 수사를 시작한 미제 사건 전담 형사 은혜주의 전화를 받고 부산으로 내려온다. 어린 시절 친구 김보미와 함께 유괴되어 혼자 살아남은 경험이 있던 은혜주와 이영우는 이영채 사건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도중 서로의 닮은 상처를 공유하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다.</p>	
14	<p style="text-align: center;"><b>숲의 아이들</b></p> <p style="text-align: center;">박주영/문학동네/2020</p>				
<p>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의 분수대 공사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된다. 유골은 이십 년 전, 일곱 살의 나이로 실종된 이영채의 것. 여동생이 실종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까지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부산을 떠나 의사로 살아온 이영우는 이영채 살인사건의 수사를 시작한 미제 사건 전담 형사 은혜주의 전화를 받고 부산으로 내려온다. 어린 시절 친구 김보미와 함께 유괴되어 혼자 살아남은 경험이 있던 은혜주와 이영우는 이영채 사건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도중 서로의 닮은 상처를 공유하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다.</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80 1055 555 1182">15</td> <td data-bbox="555 1055 1442 1182"> <p style="text-align: center;"><b>아무것도 아닌 빛</b></p> <p style="text-align: center;">정영선/강/2023</p>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480 1182 1442 1543"> <p>『아무것도 아닌 빛』의 무대는 도시 주변부이고 주된 등장인물도 노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산의 외곽 끝자락인 낙동강 유역 '은곡'의 서민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90세를 전후한 연치의 남녀 노인을 중심에 두고 이들과 연관한 여러 인물을 주위에 배치하고 있다. 시간도 팬데믹에 처한 최근 몇 년 동안이다. 노년의 삶이 그렇듯이 단조로운 일상의 사건들이 펼쳐진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아래 각기 복잡다단한 개인사가 내장되어 있다(*소설의 무대 부산외곽쪽 낙동강변 '은곡'이라는 서민 아파트)</p> </td> </tr> </table>	15	<p style="text-align: center;"><b>아무것도 아닌 빛</b></p> <p style="text-align: center;">정영선/강/2023</p>	<p>『아무것도 아닌 빛』의 무대는 도시 주변부이고 주된 등장인물도 노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산의 외곽 끝자락인 낙동강 유역 '은곡'의 서민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90세를 전후한 연치의 남녀 노인을 중심에 두고 이들과 연관한 여러 인물을 주위에 배치하고 있다. 시간도 팬데믹에 처한 최근 몇 년 동안이다. 노년의 삶이 그렇듯이 단조로운 일상의 사건들이 펼쳐진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아래 각기 복잡다단한 개인사가 내장되어 있다(*소설의 무대 부산외곽쪽 낙동강변 '은곡'이라는 서민 아파트)</p>	
15	<p style="text-align: center;"><b>아무것도 아닌 빛</b></p> <p style="text-align: center;">정영선/강/2023</p>				
<p>『아무것도 아닌 빛』의 무대는 도시 주변부이고 주된 등장인물도 노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산의 외곽 끝자락인 낙동강 유역 '은곡'의 서민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90세를 전후한 연치의 남녀 노인을 중심에 두고 이들과 연관한 여러 인물을 주위에 배치하고 있다. 시간도 팬데믹에 처한 최근 몇 년 동안이다. 노년의 삶이 그렇듯이 단조로운 일상의 사건들이 펼쳐진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아래 각기 복잡다단한 개인사가 내장되어 있다(*소설의 무대 부산외곽쪽 낙동강변 '은곡'이라는 서민 아파트)</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80 1543 555 1671">16</td> <td data-bbox="555 1543 1442 1671"> <p style="text-align: center;"><b>아버지의 광시곡</b></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성기/한길사/2024</p>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480 1671 1442 2024"> <p>조성기 소설. 경쾌하고 해학적인 문체로 파란만장한 아버지의 초상화를 통해 작가의 자화상을 그려낸다. 각각 완결미를 지닌 46편의 작은 소설들이 자유연상 기법으로 이어져 있어 독자는 편하게 어떤 순서로 읽어도 상관없다. 한국전쟁 이후 격동하는 역사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낸 가족사 그리고 뜻있는 사회운동가를 술주정뱅이 실직자로 전락시킨 이른바 '혁명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진술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역사가 토해놓은 구토물'을 뒤집어쓴 아버지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체현한다.</p> </td> </tr> </table>	16	<p style="text-align: center;"><b>아버지의 광시곡</b></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성기/한길사/2024</p>	<p>조성기 소설. 경쾌하고 해학적인 문체로 파란만장한 아버지의 초상화를 통해 작가의 자화상을 그려낸다. 각각 완결미를 지닌 46편의 작은 소설들이 자유연상 기법으로 이어져 있어 독자는 편하게 어떤 순서로 읽어도 상관없다. 한국전쟁 이후 격동하는 역사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낸 가족사 그리고 뜻있는 사회운동가를 술주정뱅이 실직자로 전락시킨 이른바 '혁명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진술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역사가 토해놓은 구토물'을 뒤집어쓴 아버지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체현한다.</p>	
16	<p style="text-align: center;"><b>아버지의 광시곡</b></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성기/한길사/2024</p>				
<p>조성기 소설. 경쾌하고 해학적인 문체로 파란만장한 아버지의 초상화를 통해 작가의 자화상을 그려낸다. 각각 완결미를 지닌 46편의 작은 소설들이 자유연상 기법으로 이어져 있어 독자는 편하게 어떤 순서로 읽어도 상관없다. 한국전쟁 이후 격동하는 역사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낸 가족사 그리고 뜻있는 사회운동가를 술주정뱅이 실직자로 전락시킨 이른바 '혁명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진술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역사가 토해놓은 구토물'을 뒤집어쓴 아버지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체현한다.</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96 91 555 219">17</td> <td data-bbox="555 91 1444 219"> <p align="center"><b>얼음꽃을 삼킨 아이</b> 박향/실천문학사/2010</p>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496 219 1444 611"> <p>성실한 아버지와 야무진 어머니, 착한 장녀와 듬직한 장남 그리고 당돌한 막내딸. 가히 대한민국의 모범이라 할 만한 가족이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집 아래에는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가 잉태한 다양한 얼굴의 폭력이 진앙으로 도사리고 있다. 마침내, 사소한 사건 하나로 균열이 시작된 그들의 작은 집은 잇따른 주검과 함께 돌 더미로 무너져 내린다. 옥영수의 죽음에서부터 5·18항쟁의 참혹한 대단원까지, 1970년대를 삼차원으로 복원해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얼음꽃을 삼킨 아이’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겪어낸 시간들은 한 소녀의 아픈 성장담이자 폭력의 땅 위에 세워진 우리 현실에 대한 르포이다. (*부산 남부민동 일대 주요 무대)</p> </td> </tr> </table>	17	<p align="center"><b>얼음꽃을 삼킨 아이</b> 박향/실천문학사/2010</p>	<p>성실한 아버지와 야무진 어머니, 착한 장녀와 듬직한 장남 그리고 당돌한 막내딸. 가히 대한민국의 모범이라 할 만한 가족이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집 아래에는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가 잉태한 다양한 얼굴의 폭력이 진앙으로 도사리고 있다. 마침내, 사소한 사건 하나로 균열이 시작된 그들의 작은 집은 잇따른 주검과 함께 돌 더미로 무너져 내린다. 옥영수의 죽음에서부터 5·18항쟁의 참혹한 대단원까지, 1970년대를 삼차원으로 복원해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얼음꽃을 삼킨 아이’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겪어낸 시간들은 한 소녀의 아픈 성장담이자 폭력의 땅 위에 세워진 우리 현실에 대한 르포이다. (*부산 남부민동 일대 주요 무대)</p>	
17	<p align="center"><b>얼음꽃을 삼킨 아이</b> 박향/실천문학사/2010</p>				
<p>성실한 아버지와 야무진 어머니, 착한 장녀와 듬직한 장남 그리고 당돌한 막내딸. 가히 대한민국의 모범이라 할 만한 가족이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집 아래에는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가 잉태한 다양한 얼굴의 폭력이 진앙으로 도사리고 있다. 마침내, 사소한 사건 하나로 균열이 시작된 그들의 작은 집은 잇따른 주검과 함께 돌 더미로 무너져 내린다. 옥영수의 죽음에서부터 5·18항쟁의 참혹한 대단원까지, 1970년대를 삼차원으로 복원해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얼음꽃을 삼킨 아이’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겪어낸 시간들은 한 소녀의 아픈 성장담이자 폭력의 땅 위에 세워진 우리 현실에 대한 르포이다. (*부산 남부민동 일대 주요 무대)</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96 611 555 734">18</td> <td data-bbox="555 611 1444 734"> <p align="center"><b>오래된 불씨</b> 고금란/호밀밭/2020</p>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496 734 1444 1093"> <p>고금란 소설가의 소설집 『오래된 불씨』는 부산에 대한 사회학적 기록과 인생과 삶에 대한 탐구 등이 녹아 있는 단편집이다. 부산의 오래된 동네를 배경으로 하여 평범하고 남루해 보일지 모를 노년의 평범한 일상이 등장한다. 흔히 황혼이라 부르는, 낡고 허름한 삶이 켜켜이 쌓여 빛을 발하는 시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몸 곳곳에 새겨진 주름 안에는 젊은 시기의 열정과 꿈이 고스란히 머물러있는데 그것들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움은 우리를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성찰하게끔 유도한다.</p> </td> </tr> </table>	18	<p align="center"><b>오래된 불씨</b> 고금란/호밀밭/2020</p>	<p>고금란 소설가의 소설집 『오래된 불씨』는 부산에 대한 사회학적 기록과 인생과 삶에 대한 탐구 등이 녹아 있는 단편집이다. 부산의 오래된 동네를 배경으로 하여 평범하고 남루해 보일지 모를 노년의 평범한 일상이 등장한다. 흔히 황혼이라 부르는, 낡고 허름한 삶이 켜켜이 쌓여 빛을 발하는 시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몸 곳곳에 새겨진 주름 안에는 젊은 시기의 열정과 꿈이 고스란히 머물러있는데 그것들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움은 우리를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성찰하게끔 유도한다.</p>	
18	<p align="center"><b>오래된 불씨</b> 고금란/호밀밭/2020</p>				
<p>고금란 소설가의 소설집 『오래된 불씨』는 부산에 대한 사회학적 기록과 인생과 삶에 대한 탐구 등이 녹아 있는 단편집이다. 부산의 오래된 동네를 배경으로 하여 평범하고 남루해 보일지 모를 노년의 평범한 일상이 등장한다. 흔히 황혼이라 부르는, 낡고 허름한 삶이 켜켜이 쌓여 빛을 발하는 시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몸 곳곳에 새겨진 주름 안에는 젊은 시기의 열정과 꿈이 고스란히 머물러있는데 그것들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움은 우리를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성찰하게끔 유도한다.</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96 1093 555 1216">19</td> <td data-bbox="555 1093 1444 1216"> <p align="center"><b>웃음과 울음의 원무</b> 허택/강/2025</p>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496 1216 1444 1574"> <p>허택 소설에는 전쟁통에 태어나 힘겨운 시대를 살아낸 어떤 세대의 초상이 겹친다. 현직 치과의사라는 작가의 이력은 몸에 대한 각별한 소설적 상상력으로 이어지면서 인간 욕망의 미로를 탐사하는 많은 이야기를 빚어왔다. 이번 소설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욕망을 둘러싼 선명한 대립 구도는 허택 소설의 중요한 서사적 동력인면서 그 구도를 허물고 넘어서는 소설 화법의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영도 지명 등장, 화자의 집 영도 산동네의 자그마한 재개발 아파트)</p> </td> </tr> </table>	19	<p align="center"><b>웃음과 울음의 원무</b> 허택/강/2025</p>	<p>허택 소설에는 전쟁통에 태어나 힘겨운 시대를 살아낸 어떤 세대의 초상이 겹친다. 현직 치과의사라는 작가의 이력은 몸에 대한 각별한 소설적 상상력으로 이어지면서 인간 욕망의 미로를 탐사하는 많은 이야기를 빚어왔다. 이번 소설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욕망을 둘러싼 선명한 대립 구도는 허택 소설의 중요한 서사적 동력인면서 그 구도를 허물고 넘어서는 소설 화법의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영도 지명 등장, 화자의 집 영도 산동네의 자그마한 재개발 아파트)</p>	
19	<p align="center"><b>웃음과 울음의 원무</b> 허택/강/2025</p>				
<p>허택 소설에는 전쟁통에 태어나 힘겨운 시대를 살아낸 어떤 세대의 초상이 겹친다. 현직 치과의사라는 작가의 이력은 몸에 대한 각별한 소설적 상상력으로 이어지면서 인간 욕망의 미로를 탐사하는 많은 이야기를 빚어왔다. 이번 소설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욕망을 둘러싼 선명한 대립 구도는 허택 소설의 중요한 서사적 동력인면서 그 구도를 허물고 넘어서는 소설 화법의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영도 지명 등장, 화자의 집 영도 산동네의 자그마한 재개발 아파트)</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96 1574 555 1697">20</td> <td data-bbox="555 1574 1444 1697"> <p align="center"><b>위대한 사기</b> 문성수/전망/2020</p> </td> </tr> <tr> <td colspan="2" data-bbox="496 1697 1444 2056"> <p>복잡다단한 인간의 내면세계와 인간사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는 8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이번 소설집에 실린 소설의 배경은 대부분은 부산의 구체적 장소이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이 결국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삶의 모습과 다른 아님을 소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친근한 장소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려는 의도를 아울러 담고 있다.</p> </td> </tr> </table>	20	<p align="center"><b>위대한 사기</b> 문성수/전망/2020</p>	<p>복잡다단한 인간의 내면세계와 인간사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는 8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이번 소설집에 실린 소설의 배경은 대부분은 부산의 구체적 장소이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이 결국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삶의 모습과 다른 아님을 소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친근한 장소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려는 의도를 아울러 담고 있다.</p>	
20	<p align="center"><b>위대한 사기</b> 문성수/전망/2020</p>				
<p>복잡다단한 인간의 내면세계와 인간사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는 8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이번 소설집에 실린 소설의 배경은 대부분은 부산의 구체적 장소이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이 결국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삶의 모습과 다른 아님을 소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친근한 장소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려는 의도를 아울러 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일각고래의 뿔</b></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연희/강/2022</p> <p>유연희의 세번째 소설집 『일각고래의 뿔』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 소설로 채워져 있다. 바다를 향한 작가의 관심에는 국내 최대의 항구도시인 부산에 연고를 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집요함이 엿보인다. 바다를 무대로 한 만큼 『일각고래의 뿔』에 실린 소설들에서 물을 떠난 뱃사람들의 항해는 곧잘 인생행로에 비유되곤 한다. 광막한 바다 위에서 어둠과 시커먼 파도를 헤치고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등대의 불빛을 따라 뱃머리를 돌리는 일은 우리의 삶을 잘 보여준다.</p>
	<p style="text-align: center;"><b>호텔 해운대</b></p> <p style="text-align: center;">오선영/창비/2021</p> <p>오선영 두번째 소설집. 부산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서울’이 아닌 ‘인부산’을 하고 싶어 하는 공시생, 지역작가로 불리며 자비출판의 씩씩함을 견디는 소설가, 부산에 살면서도 해운대 한번 놀러가기 어려운 사회초년생, 지방대학 출신 시간강사까지. 오선영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풀어내는 동시에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삶 속에 스민 아픔을 짚으며 우리 사회 보편의 문제를 다룬다. 소설들은 대부분 부산을 배경으로 한다. 저자는 근래 어느 작가들에 견주어 보아도 지역의 숨결을 작품 안에 생생하게 담아낸다. 한발 더 나아가 시간강사, 저소득층 아동 후원, 비정규직, 산업재해, 부동산, 실업, 대학 내 성폭력,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문제를 세심하면서도 재치 있게 소설 곳곳에 녹여낸다.</p>